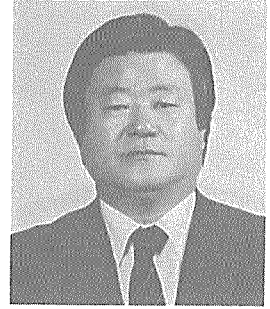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박계동 / 본회 비상근 부회장
동형전선(주) 사장

국내외에 펼쳐지는 숨막히는 환경의 변화와 강렬해지는 경쟁의 눈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본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회사의 간부들에게 입버릇처럼 즐겨 쓰는 말이 있다. 「어려운 일도 쉽게 생각하고 추진하라」는 것이다.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시대에 생존을 지키며 우리나라 전자·전기공업의 초석과 같은 재료인 마그네트와이어와 부품인 트랜스포머 등을 20년이상 제조와 수출에 종사해온 본인으로서 가히 한마디로 표현키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2차 오일쇼크를 넘기면서 겪었던 기업경영인으로서의 체험과 위기감은 세월을 보낸 후에야 하나의 극복능력과 지혜로 내면을 살찌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80년대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투자위축분위기 속에서도 본인은 신공장단지의 조성공과 공장 신축 및 신시설도입 설치 등으로 성장과 변화의 몸부림을 쳐왔으며 21세기를 준비하는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기술·신소재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어렵다. 힘들다는 주위의 공통스런 하소연에 익숙해진 작금의 상황에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희망을 가지기 위한 여섯가지 특징을 떠올리곤 한다.

즉 ① 내앞에 불가능은 없다는 확

신을 갖고 ② 발전을 쫓먹는 불행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창의력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고 ③ 항상 아름다운 꿈을 품어 소망스런 상상력을 키우고 ④ 최선을 다해 일하므로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⑤ 시련과 고통이 올때 그것을 자기발전의 기회로 선용하고 ⑤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하였지 않았나? 또 토마스·에디슨은 「인생 앞에는 절망도 없고 불가능도 없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가 당면했던 경제난제들중 지난 3년간 큰 이슈를 이룬 것은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이다. 우리경제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는 '86년에서 '90년까지 4년간을 제외하곤 계속되었다. 둘째는 물가이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85년에서 '87년까지 3년간 3% 미만으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던 것이 '88년에는 7.1% 상승을 기록한 이래 '90~'91년에는

평균9%의 상승폭을 보였다. 세번째는 우리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부문의 성장둔화이다.

그리고 네번째는 지난 5년간 임금수준이 급상승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를 급속히 증가시킨 점이다. 그 외에도 우리 경제에서 노사관계의 불안정·사회간접자본의 절대적인 부족현상 등 현안은 얼마든지 있다. 기업내부에 눈을 돌리면 기업이 추구해야 할 확고한 목표와 방향은 '90년대 경영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새로운 경영기법을 System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새로운 영업/생산체제를 도입하여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나가는 경영기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고객의 가치창조를 유발시켜 새로운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해야 하며 세째는 정보의 경쟁전략화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홍수와 제3·제4의 물결을 헤쳐나가며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많이 변화된 미래를 대비하는데는 우리의 오랜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잘 강구해 나간다면 위기는 곧 또하나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다.